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

이민숙*, 신창식**, 양소남***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male family care worker and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Min-Sook Lee*, Chang-Sik Shin**, So-nam Yang***

Dept. of Social Welfare, Sahmyook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독특한 돌봄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에서 8월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7명의 남성가족요양보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돌봄 경험의 핵심주제는 역할전환에의 적응,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을 조명해 봄으로써 만성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피부양자는 물론 지지가 필요한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부양부담, 돌봄 경험, 융복합 정책, 남성가족요양보호사, 주제분석방법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experiences of male family care worker who are caring for their family members with chronic health conditions at home. Qual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participants. Data were analysed using thematic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men are playing greater roles in the provision of care for family members. Findings are presented as three themes: adaptation of role transformations, development for new relationships, and learning to cope with the unexpected. The results suggest that male family care workers experience changes in the ways that they adapt their traditional roles to the new roles they assume as caregiver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ers and other care providers are discussed.

Key Words : Caregiving burden, Caregiving experience, Convergence policy, Male family care worker, Thematic analysis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인구 역시 양

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가치관의 변화, 정서적 유대의 약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가족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돌봄 기능 또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노인 돌봄을 담

Received 12 January 2015, Revised 23 February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Chang-Sik Shin(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Email: csshin@dju.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당해왔던 가족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현실의 욕구를 반영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요보호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보호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를 활용하여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5.8%인 약 34만명이 장기요양보험급여를 통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그동안 가족구성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맡겨져 왔던 노인돌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전문 직업인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연구로는 요양보호사의 자기인식 및 전문가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직무경험에 관한 연구, 그리고 노인돌봄경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근무조건, 역할갈등과 모호성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직과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3,4,5]. 일부 연구들은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전문 돌봄 노동 종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6,7,8].

이근홍과 김현덕은[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전문성, 장기요양관리체계와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감독 미비 그리고 제도 설계 당시에는 예측되지 않았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공식 용어가 아니며, 방문요양서비스 수급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돌보는 노인의 담당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증가

원인에 대해 최인희와 동료들은[10] 노인이용자의 선호와 경제적 이유, 가족 돌봄자의 욕구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하였고, 양난주는[11]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를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으로 들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는 요양보호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 할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돌봄경험을 연구한 이민숙은[12] 가족돌봄제공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의 직무로써 가족을 돌보는 것과 일상생활로써 가족을 돌보는 것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편견과 부양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지속하는 적응능력과 탄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돌봄제공자 비율 또한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돌봄경험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수행되고 있다. 노인부부가구에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의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부인에 대한 돌봄을 사랑과 책임감, 자기가치감과 성장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13],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돌봄에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된 공간에서 전적으로 혼자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친밀한 관계의 역사가 아닌 한 부부 돌봄은 오히려 가장 고립적이고 부담이 큰 돌봄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4]. 이 외에도 초로기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경험을 연구한 이현주와 동료들은[15] 남성들이 배우자를 돌보면서 기존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일상생활 관리나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어려움[16] 등을 경험하고 이와 함께 성적욕구불만이나 경제적 타격과 일에 대한 갈망, 자기변화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한 적응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의 도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남성수발자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을 돌보는 경험은 어떠한지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모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돌봄 자체가 여

성의 성 역할로 국한되어 묘사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인 남성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대상으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독특한 돌봄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던 주부양자이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이 다수인 요양보호직에서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적응과정과 돌봄역할 수행의 경험, 이들의 경험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만성장기요양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참여자는 노인요양보호기관을 통해 소개받았으며 적절성과 충분성을 고려한 후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se	Participants			
	Age	Relationship with care recipients	Living together family	Working as a care worker
1	80	Spouse	-	-
2	63	Son	Spouse	O
3	73	Spouse	-	-
4	76	Spouse	-	-
5	30	Grand son	-	-
6	51	Son	Independent business	O
7	78	Spouse	-	-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기준은 첫째, 연구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돌봄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이며, 둘째,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양자들은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에 제한이 있어서 참여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care recipients

Case	care recipients			
	Age	Sex	level	Disease
1	77	F	2	Stroke, Dementia
2	92	M	2	Dementia
3	70	F	3	Atrial fibrillation, Stomach ulcer, Parkinsonism
4	73	F	3	Renal failure, Diabetes
5	71	F	3	Dementia
6	86	F	2	Dementia
7	70	F	2	Paralysis of lower half of body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 중의 하나는 돌보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욕구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이용하였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 자녀에 대한 배려, 피부양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이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된 이유였다.

2.2 자료수집

자료는 2012년 6월에서 8월말 사이에 수집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평균 90여분 정도가 소요된 인터뷰는 동거 가족에게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가족 돌봄 책임자로서 이들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가 작성한 일지, 일기, 표창장, 사진 등 다양한 문서들을 수집하여 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3 자료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심층면담을 녹취한 원자료(raw data)와 현장노트이다. 자료분석은 자료 수집단계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자료로부터 주제와 관련된 패턴을 확인하고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17,18]. 질적자료분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분석은 다른 질적

분석방법에 비해 인식론적 입장에서 상당히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갖추고 있는 귀납적 탐구방법이다[19]. 먼저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직접 필사하고 이를 줄단위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 전체 자료에서 의미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초기 부호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코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번째로, 잠정적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코드와 잠정적인 주제를 대조하면서 주제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네 번째로 주제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위해 먼저 코드화된 전체 자료를 재검토 하였다. 모든 전사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도출된 주제가 일관된 패턴을 보이면서 전체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도(thematic map)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주제도가 전반적으로 자료 내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모든 자료에서 개별 주제가 타당성을 확보하는지 고려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각 주제를 정련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을 하면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주제를 명명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자료수집 방법의 다원화와[20], 분석과정에서 텍스트를 연구참여자 일부와 공유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과정을 거쳤다[21]. 이러한 노력은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3. 연구결과

3.1 역할전환에의 적응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해왔던 남성들은 가족의 주된 돌봄 책임자가 되면서 기존의 결혼관계에서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3.1.1 인권을 지켜주는 보호자

이들이 경험하는 돌봄 책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물론 남성들은 항상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 오긴 했지만, 배우자나 가족의 존

엄성을 존중해 주고 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몸 닦아줄 때도 보니까 그냥 이불 확 걷어서 훤히 다 보이게 해놓고 닦고 하더라 말이야. [집사람이]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거든. 나는 그래도 최대한 이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 같이 그렇게는 안하려고 하지. (참여자1)

3.1.2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관리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피부양자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배우자나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힘을 얻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손 아니면 할 수가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먹는 것부터 씻는 것, 싸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해. (참여자7)

3.1.3 가사노동자

남성이 가족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역할전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피부양자의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피부양자의 위생상태나 의식주를 지원하는 주 돌봄제공자 역할과 함께 그동안 여성이 전담해왔던 가사, 요리, 세탁 등 또한 참여자들의 담당이 된다. 현재는 익숙하게 해내지만 처음 접했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생소함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집사람을 돌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그 전에는 전혀 해본 적이 없지. 처음엔 삼시세끼 먹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고 빨래고 집이고 엉망이었는데 ... 근데 이제는 덮는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빨고, 밑에 거는 한 달에 한 번 갈아줘. 매일 저녁에 요리 조리 닦아주고, 요리도 하고. 청소는 일주일에 두 번 하지. (참여자1)

이와 같이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나름대로 피부양자와 자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면서 보다 수월하게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 감기는 게 서툴러서, 내가 생전 남의 머리를 감겨줘야지. 눈에 비누 들어가고 막 힘들어 했는데, 요즘엔 나름 방법도 터득하고 익숙해져서 집사람이나 나나 별로 힘 안들고 머리를 감기지. (참여자4)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보다 편리한 방법을 생활에 활용하기도 한다.

교육받으면서 속 기저귀 넣는 거도 알게 되고 ... 그 전까지는 기저귀를 얼마나 자주 바꿨는지 몰라. (참여자1)

마음가짐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또 요령들도 많이 배우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케어를 할 수 있죠. (참여자5)

3.1.4 전문자격 갖춘 돌봄제공자

교육 수료 후 요양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 참여자들은 그동안 힘으로 돌봐왔던 일들을 기술을 적용해 그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돌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러 환자들의 사례를 듣고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있었다.

갑자기 아플 때 응급처치 하는 거. 전에는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차에다가 싣고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은 일단 아프다고 하면 조금 진정을 시켜봐서 의사가 준 약을 먹어보고 한 20-30분 기다려요. 경험상 그렇게 기다려보면 진정되더라고요. (참여자7)

이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투입되면서 부터는 전신마비 남자 환자의 목욕서비스 등과 같이 남자 요양보호사를 보다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생기면서 자신이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에 자긍심을 갖기도 하였다.

방문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남자가 아니면 하기 힘들더라고요. 들어올리기도 힘들고 그렇긴 한데 나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 기쁘더라고요. (참여자6)

이와 같은 자긍심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 중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였다.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일하는 동안 피부양자를 돌봐줄 다른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2와 6은 아내와 누나가 참여자들을 대신해서 이들의 빈자리를 지킨다.

3.1.5 새로운 전자시스템에 적응하는 도전자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RFID를 들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 및 종료시간, 제공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RFID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요즘엔 핸드폰하고 리더기로 해요. 예전엔 일지를 썼지만. 근데 이게 읽히지 않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럼 센터에 전화하든가 해야 하는데 좀 번거롭더라고. 불편하긴 마찬가지고. (참여자2)

연령대가 높은 참여자가 대부분이고 일지를 대신해서 RFID를 도입하고 있는 과도기이므로 전자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이를 어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

24시간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가족 돌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기에 가족 돌봄제공자와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의 경계는 모호한 편이었다.

3.2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킴

3.2.1 헌신과 정이라는 친밀한 관계

대부분의 남성 돌봄제공자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질환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함께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기존 관계와는 조금 다른 헌신과 정이라는 다른 종류의 친밀감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사람 때문에 총각으로 지낸지 몇 년 되었지. 그냥 어찌 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래. 이런 게 내외간의 정이지 뭐. (참여자3)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참여자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배우자 및 가족의 격려와 인정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아무리 참 못한 저지만 저더러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 길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흐뭇하지. 저 사람이 그 걸 알고 있구나 ...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고. (참여자4)

3.2.2 갈등과 인내의 반복

참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평소에 수동적이었던 피부양자나 가족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전혀 다른 인격을 보일 때였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피부양자를 나름 좋은 사람내지 가여운 사람으로 표현하던 부양자들도 질환으로 인한 인성의 변화에는 지치고 힘들어 했으며 포기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따금씩 바지에다 오줌 싸고 화장실 쓰레기통 만지고 음식 뺏아서 막 먹고 ... 물건 같은 거 전부 끌어다가 변기 속에 집어넣고 ... 그런 행동들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냥 시설 보낼까 ... 그러다가도 속상하지만 어떻게했어. 내가 돌봐야지. (참여자6)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피부양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부양자의 기대하지 못했던 언행에 대해 실망하는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힘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점점 인내심이 없어져서 그게 걱정이예요. 머리론 그게 아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화가 나요. 물론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면 걸 알지만 점점 성질을 내게 되네. (참여자2)

이와 같이 돌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삶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관계들로부터 점차적으로 고립되고 있었다.

사실은 요 근래 친구 만나는 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집사람이 있는 한은 뭐 제 일번 순서니까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람을 체쳐 놓고 나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늘 급한 환잡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이면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참여자3)

항상 머릿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개인 생각

은 안 해봤어요. 할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자유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내 시간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여자7)

3.2.3 현재를 중요시함

이와 같이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 피부양자를 일 순위로 여기는 참여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를 예측할 때이다. 돌봄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참여자들은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그래서 나중에 지금이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애들이 이 사람을 돌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죽고 나면 아마 시설로 가지 않을까 ... 이렇게라도 살아주면 그래도 좋겠더라고. (참여자1)

이 사람 죽으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그냥 지금처럼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대답하고 ...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여자7)

이러한 안타까움과 함께 피부양자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 미묘했다.

저 사람은 나 믿고 평생 살았는데 사실 막상 아프다보니 까 제일 그제 안타까운 거는 내가 평상시에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썼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참여자3)

대부분의 남성들은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부심은 외부 타인들의 시선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었다.

어머님 잘 모시고 있다고 칭찬도 듣고 손님들이 본인은 저처럼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참 용하게 잘한다고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더 신이 나고 주위 어르신들도 나한테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참여자6)

3.2.4 여성영역에의 도전과 지지

흥미롭게도 가족 돌봄 제공자로서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걱정하거나 그런 일을 왜 하나며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 여겨져 왔던 가족돌봄의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참여자들이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현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종의 도전이었음을 참여자 2는 대변하고 있다.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못한다, 어떻게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겠느냐. 친구들도 처음에 그걸 뭐하러 하나고 다들 그랬죠 ... 나는 어차피 아버지도 돌보고 있고 살면서 하던 일을 하는 건데 못하게 뭐있냐, 내가 도전해본다. 까짓거. 그렇게 시작했죠. (참여자2)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면서 모든 수강생이 여자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남자인 참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조용히 교육에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부 다 여자들이란 말이야. 남자는 없지. 거기서 남자 저 혼자였죠. 이거 완전히 처음에는 왕따같이 그냥 말도 안하잖아요. (참여자2)

그러나 실제적인 돌봄 기술이나 현장실습이 행해지면서 기존에 가족돌봄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던 참여자들은 경험이 없는 교육생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면서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받는 과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휠체어 태우고 내리는 거, 화장실 갔다가 옷 갈아입히면 수건으로 전부 닦아주고 ... 전부 내가 집에서 하는 그걸 실습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거기 자매님들을 가르쳤어요. 실습 나가서 제일 싫어할 하는 게 똥치우는 거 그런건데 그건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엔 허물없어지고 그랬지. (참여자7)

소수의 참여자는 방문요양을 하면서 자신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합부로 대하는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직무경험과 유사하다[22].

요양보호사를 나가보면 우리를 공적인 파출부로 인식하

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집에 가서 뭐 정해진 시간에 일하다가 돈 타고 시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참여자6)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피부양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지치와 놀림이라는 상반된 반응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한 참여자 7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공단에서 뭐 표창장 타러 오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거 친구들이 마누라 똥 잘 치운다고 준거라고 어찌나 놀리던지 ... 그 말도 맞지 뭐. (참여자7)

또한 돌봄 행위에 대해 공적보상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가족요양보호사들은 상처받기도 하지만 자신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전문 자격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가족에게 제공하기에 정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저는 새벽 6시부터 시간만큼 하는 걸로 해요. 그 시간엔 [요양보호사]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낮에 많이 주무시니까 보통 새벽 2시쯤 눈 뜨시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돌보니까 남들이 뭐라해도 난 당당해요. (참여자2)

3.3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돌봄을 지속해야만 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때 역시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삶 또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혼자 운동이나 산책을 한다거나 요양보호 관련 모임에 참여 하는 등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편안해 졌다고 하였다.

3.3.1 혼자만의 시간 갖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하루 일정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시간의 정도는 참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피부양자가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피부양자의 수면시간이라든가 다른 가족원이 참여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에 자신 만의 시간을 갖는 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여기 호수 앞에 산책로 한 바퀴 돌고 와요. 집사람은 8시 전에 밥을 먹어야하니까 그 전에 들어와서 식사준비를 하거든요. (참여자7)

3.3.2 요양보호관련 모임 참석

또 다른 전략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안과 힘을 얻는 것이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친구와의 만남은 자제하고 있었지만 요양보호 관련 간담회나 재교육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는 제가 꼭 참석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암만 잘 하는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빠지지 않아요 ... 환자가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어디 가서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서로들 토론을 하거든요. 같이 호응하고 조금은 속이 풀리죠. 서로 들어주고 힘이 되고 좋지. (참여자4)

참여자들은 고된 하루 일상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환자 데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 다 모든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먹을 것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집이라는 공간은 좀 지저분하게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는 그냥 두어 번 할 거 한 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깔끔하게는 못하겠죠. 처음엔 저도 어떻게든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5)

3.3.3 타인에 대한 성찰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남자는 여자의 주인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례도 있었다. 참여자 4의 사례는 배우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준대로 따라 와주지 않는 배우자를 돌보며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했지만 배우자를 인격체로 인정하게 되면서 돌봄 행위가 수월해진 경험을 들려주었다.

예전에는 여자는 그냥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남자 갖

다 주는 거 그 한도 내에서 뭐 하는 거다, 여자는 내 소유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 여자는 여자대로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니까, 그 인정하기 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이 환자 돌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참여자4)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요양보호기관을 통해 자신의 돌봄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7명의 참여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가족 돌봄의 책임자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수행해왔던 역할에서 여성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돌봄 역할과 가사를 수행하게 된다.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아닌 타인과 외부로부터 피부양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피부양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면서 이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미의 보호자가 된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은 성공적으로 역할전환에 적응하고 있었다.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가족 돌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기에 가족 돌봄 제공자와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의 경계는 모호한 편이었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와 피부양자들은 헌신과 내외간의 정, 그리고 희생이라는 친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양부담은 참여자들을 지치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23].

셋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요양보호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지를 받고, 기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여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등 자신만의 대처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경험의 핵심 주제는 역할전환에의 적응,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움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가족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삶에서 피부양자를 돌보는 것을 제일 우선시 하며 양질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이 피부양자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피부양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돌봄 부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피부양자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대신해 주는 경우 또는 피부양자의 수면 시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보다 적절한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참여자들의 돌봄 경험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24]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참여자의 건강한 삶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보건과 복지의 융복합적 관점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의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오랜 부양 기간 동안 돌봄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은 이들로 하여금 보다 수월하게 돌봄 노동을 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자격취득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자격취득 교육은 참여자들과 그 가족에게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질환별 특성이나 문제행동 관리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독특한 돌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이 RFID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RFID 사용 및 보급은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융복합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남성가족요양보호사와 피부양자

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성 돌봄 제공자가 여성 돌봄 제공자보다 공적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긴 하지만[46],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남성부양자들이 경험하는 역할이나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돌봄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친밀감, 죄책감, 불안감 등의 감정은 사회복지사와 남성 돌봄제공자 사이에서 쉽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러한 남성들을 만났을 때 낙인이나 당혹감을 주기 보다는 이들의 돌봄 행위를 지지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감정을 다루는 개별 프로그램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동료집단이나 자조모임 등과 같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감정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남성 돌봄제공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강점관점과 남성 돌봄제공자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관련하여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남성가족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남성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여겨 왔던 돌봄노동 현장에서 남성 요양보호사로서 자리매김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영역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로서의 남성요양보호사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S. Joo, Y. K. Moon, Y. T. Kim, C. S. Song, K. P. Park, C. K. Soun & K. J. Le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the 2013 Annual Report.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3.
- [2] H. Moon, The mediator effect of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givers' job stress and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 Living Science, Vol. 21, No. 3, pp. 341-350, 2010.
- [3] J. J. Lee,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ong-term care services, work stressors, emotional support,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1, pp. 97-109, 2011.
- [4] H. J. Lee & S. H. Kwon,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among caregiv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1, pp. 125-144, 2011.
- [5] Y. J. Jung & M. J. H. Seo,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givers' identification building process as elderly care professionals. *Social Science Studies*, Vol. 36, No. 2, pp. 189-226, 2012.
- [6] H. K. Choi, A study on direct care work as emotional labour in nursing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rach*, Vol. 29, pp. 113-138, 2011.
- [7] S. Y. Hong, The study about the meaning of the formal elderly care labour by employee in long-term care sett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1, pp. 165-190, 2011.
- [8] M. J. Kim & Y. J. Kim, Study on the elder-care experiences of home care workers.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Vol. 6, No. 2, pp. 159-194, 2012.
- [9] K. H. Lee & H. d. Kim, A Study on the problems of and an improvement pla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past six years. *Social Science Studies*, Vol. 22, pp. 282-296, 2013.
- [10] I. H. Choi, U. J. Kim, S. Y. Jung & N. J. Yang,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the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1.
- [11] N. J. Yang, A study on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 Why families choose to be care worker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20, No. 2, pp. 97-129, 2013.
- [12] Min-Sook Lee,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 who supports an family member recogniaed as the beneficiar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h.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2012.
- [13] H. J. Lee, Caregiving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Alzheim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6, No. 1, pp. 45-62, 2006.
- [14] S. M. Lee & H. K. Kim, Elerly hubands' caregiving for their sick wives. *Family and Culture*, Vol. 21, No. 4, pp. 111-121, 2009.
- [15] H. J. Lee, S. Y. Kim & H. A. Ku,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presenile dementi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1, pp. 35-74, 2007.
- [16] Luscombe, G., Brodaty, H. & Freeth, S., Younger people with dementia: Diagnostic issues, effects on carers and use of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13, pp. 323-330, 1998.
- [17] Ryan, G. W. & Bernard, H. R., Techniques to identify themes. *Field Methods*, Vol. 15, No. 1, pp. 85-109, 2003.
- [18] Braun, V. &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pp. 77-101, 2006.
- [19] Ritchie, J., Lewis, J., Nicholls, CMN. & Ormston, R.,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London: Sage, 2013.
- [20]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Moonumsa, 2006.
- [21] Silverman, D., *Introducing qualitative research*. pp. 1-8. in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 and practice (3rd Ed.)*, edited by D. Silverman. London: Sage, 2010.
- [22] I. H. Choi & J. H. Kim, Characteristics of certified family care providers and informal caregivers, and predictors of their caregiving burden. *Family and Culture*, Vol. 25, No. 3, pp. 159-185, 2013.
- [23] Chang, C. F. & White-Means, S. I., The men who care: An analysis of male primary caregivers who care for frail elderly at hom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10, No. 3, pp. 343-358, 1991.

- [24] Kramer, B. J., Men caregivers: An overview. pp.3-19. in Men as caregivers: Theory, research, and service implications, edited by B. J. Kramer, & E. H. Thompson,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2002.

이 민 숙(Lee, Min Sook)



- 1982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 심리학과(문학사)
- 2005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 E-Mail : lightj40@hanmail.net

신 창 식(Shin, Chang Sik)



- 1993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5년 7월 :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
- E-Mail : csshin@dju.kr

양 소 남(Yang, So nam)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6년 7월 :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snyang@kgu.ac.kr